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3주일
제34권 3호(가해) 2013.12.15

[묵상]



"나자렛 예수는 참 메시아이신가?"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나병 환자들, 귀먹은 이들, 죽은 이들,
가난한 이들, 앓는 이들, 소외된 이들, 이들의 모든 절규와 의문이
오늘 요한이 던지는 의문이요 절규가 아닐까요?

과연 이들에게 오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과연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자비하시다"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하느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못 보던 사람이 바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는 것은
억울한 이의 하소연과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의 절규가
귀에 들리는 것을 말하며,

병어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이웃을 용서하는 말, 이웃을 칭찬하는 말,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오시기로 되어 있는 구세주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제단체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최근석 마리아,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주 일	(연)이윤조 클라라, 김성일 바오로, 신대진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도,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손석봉 로렌조 & 손재학 필립,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소효균 요셉 & 소수연 안나, 박지열, 박수권 스테파노 & 권순남 마리아, 이덕철 루카
낮 미사	(생)신영세자들, 정연영 크리스티나, 김상규 니콜라오, 이근모 마리아노 & 이형자 리드비나, 배경한 찰스 가정, 이세희 프란체스카, 아담 셀덴, 안나회원들, 이순자 비비안나 & 이민상 요한, 이재용 안드레아, 박혜경 레나타 & 박진수 스테파노,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투시아 가정, 김택수 프란치스코 & 김명숙 루실라가정, 김중문 아놀드 & 김진희 골롬바 가정, 육재민 미카엘 & 김수민 헬레나 가정, 김명숙 루실라의 대녀들, 김지미 & 선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오마우라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35,1-6.10

화답송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 - 소 서.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5,7-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1,2-11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4	123	133
봉헌	270	259	269
성체	고백	269	304
파견	127	255	217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5) 마리아의 노래(성모의 노래)

여기서 구원은 상황의 반전(反轉)으로 묘사된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내쳐지고, 보잘것없는 자가 높여지며,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돌아가게 된다. 곧 하느님께서 뒤집으시고, 들어 높이시고, 모아들이시며, 다시 보내시는 활동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분으로 찬양받으신다. 또한 구원 역사 안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마리아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 업적이 찬양되고 있다. '주님의 종' 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진 하느님의 자비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성실하게 실현되고 있음이 '주님의 여종'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확인되는 노래이다.

일찍이 오리게네스 교부는 '마리아의 노래'속에서 마리아의 겸손, 가난, 신앙의 충만함, 영적 인식, 하느님 신비의 계시를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지혜 등의 덕을 보았다. 그리고 그 노래를 성모 마리아의 예언 능력을 드러내는 '예언'으로 간주하였다. 바실리오 교부는 '마리아의 노래'와 관련하여 마리아를 '여예언자'로 부르기도 하였다.

사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한없는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바쳐야 할 감사의 노래이다.

6)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찬미가 '아카티스토스'는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찬미가이다. 형용사 '아카티스토스'는 '잊지않는'이라는 뜻의 그리스 말이다. 곧 이 찬미가를 바칠 때 마리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자 일어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비잔틴 전례에서 사순 제5주간 토요일을 '아카티스토스의 토요일'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이 찬미가가 전례 중에 읊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8세기경의 기록에 따르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방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철야 기도 중에 이 찬미가가 읊어졌다고 한다.

이 찬미가의 작가와 그 시대는 분명하지 않다. 신학자 에르만노 토니올로(E. Toniolo)는 이 작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다. "분명 그 작가는 대시인이며 탁월한 신학자요, 명상가로서 교회의 신앙을 종합해서 전할 줄 아는 위대한 인물이다. 아울러 익명으로 자신을 숨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다. 세상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신다.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찬미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었다." <◆계속>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욱 화사하게!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서울광장 같은 공공장소에도 웅장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고, '성탄 특수'를 노리는 상점들의 화려한 장식과 음악 소리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이사 35,5-6)라는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복음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세례자 요한이 약간 동요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마태 11,3)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성한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에서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마태 9), 다리 저는 이들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시며(마태 15, 요한 5),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루카 17)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해 주시며(마르 7)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해 주셨지만(마태 8), 이런 혜택을 누린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의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눈먼 이들이 보

고 다리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5)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반응이 없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마태 11,11)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미루어 요한은 주님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마태 11,11)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작은 표지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하늘 나라의 작은 표지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표지들이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되어 올해 성탄에 세우게 될 크리스마스트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그래도 나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섭섭했고 인정받지 못할 땐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해서 내가 아닌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안도하고 불안해하며 흔들렸습니다. 남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인정받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타인에게 나를 말기는 것이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별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3주일(가해)

이제 세번째 대림초를 밟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자선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12월24일(화) 밤 9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 : 12월25일(수) 오전 11시
- ◆송년 감사미사 : 12월31일(화) 밤 11시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새해 1월1일(수) 오전 11시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세례식과 축하식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15일) 세례식에서 6명의 새영세자가 탄생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일시 : 15일(주일) 낮미사중
- 새영세자 : 김정선 안나, 김준 아이다노, 서지연 레베사, 안진영 릴리엔, 오상준 토마스, 최재웅 제노
- 축하식 : 낮미사후 친교장

◆ 성탄맞이 전신자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성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대청소 : 오늘주일(15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점심후
- 카펫클리닝 : 16일(월), 17일(화)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게시판 참조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 청소년 보호봉사자 필수교육(Virtus Training)

- 일시 : 12월22일(주일) 오후 1시~4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자모회,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성탄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미사 시간을 임시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 저녁미사가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됩니다.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및 모든 봉사자

- 강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 310-408-9070

◆ 2013년 교무금과 성전헌금 12월에 마감합니다.

- 넉넉한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을 앞두고, 올 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장례를 사용할 때와 성체조배실 앞에서 조용히 합시다.

- 성전에서 장례를 사용하실 때 가급적 소리나지않게 조용히 내리고 올립시다.
- 기도하는 분들에게 방해되지않도록 성체조배실 앞에서 조용히 합시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미주가톨릭방송에서 방송인재를 초빙합니다.

- 대상 : 편집, 구성, 기술직, 아나운서 봉사자
- 방송시간 : 매주토 오후 7시~9시 AM1650(라디오서울)
매주일 오전 6시~8시 AM1230(우리방송)
- 문의 : 미주가톨릭방송(LA월서블터마드 3435 #2620)
☎(858)366-401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15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짜장밥 \$3)
* 주일학교(10학년 짜장밥)
- 12월22일(주일) : PV 2/4반(육개장 \$4)
* 주일학교 : 방학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상근	김성택
	김성현	김옥찬	김일선	김정희	김종렬	김현숙
	김형순	나경흠	노혜숙	민형기	박완철	석순영
	성필영	송영미	안민수	염세중	염영희	오세원
	유근우	윤선희	이경수	이귀분	이남현	이상석
	이일길	이재정	장정진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최의수	최재은	최지영	최희숙	한장환	황인중
	송마이클	한길선평			합계 : \$4,030	
주일미사 헌금 : \$2,963						
성전헌금	권태만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현숙	나경흠
	노혜숙	박완철	석순영	안민수	염세중	오세원
	유근우	윤선희	이경수	이귀분	이남현	이상석
	이재정	장정진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최재은
	최지영	한장환	황인중	송마이클	한길선평	
	리사이클링 : \$118.20					합계 : \$4,608
감사헌금 : 익명 윤석구	한남체인 도네이션 : \$350					

□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14일(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주일학교 성탄예술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유치원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예술제에서 어린이들은 각자의 기량과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교우들로부터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교사들과 자모회에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2일(주일)/29일(주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어른들이 전례를 맡습니다.
- 개학 : 1월 5일(주일)

◆ 한인 가톨릭 청소년 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장소 : Servite 하이스쿨(1952 W. La Palma Av. Anaheim)
- 참가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25(점심포함)
- 신청마감 : 오늘주일(15일 겨울방학전)
- 준비물 : 주일학교 행사 특별 티셔츠 제공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12월21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대레사 수녀

◆ 커피와 신앙의 만남 '이냐시오 커피' 선물세트 판매

- 수익금 : 모든이들이 즐길 수 있는 커피 조성과 가난한 이웃과 나눔실천, 그리고 성당 건립기금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LA 아그네스 성당 ☎(323)731-4433

◆ 남가주 M.E. 송년모임

- 일시 : 12월21일(토)오후 6시 *장소: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참가비 : 부부당 \$150(경품 포함)
- 연락처 : 본당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중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의(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녜스 기도회장 ☎(310)780-0369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염영희 베로니카 213-278-3279 12/14(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14(토) 오후 6시 홈타운부패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3(금) 오후 6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22(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윤화경 바오로 999-5808 12/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 안나 968-7600 1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남구역 합동반모임 580-2912 12/13(금) 오후 7시 성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12/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서창호 바오로 257-1607 12/14(토) 오후 6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84-3289 12/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김명 스텔라 482-9108 12/6(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12/13(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68 12/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가톨릭교회교리서해설 Q/A

성모님의 겸손

"성모님의 겸손은 온 교회가 본받아야 할 덕인가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줍니다. 수난 직전 예수님께서도 믿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하시며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치를 이루는 핵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를 엮어 줍니다. 겸손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올게 하는 덕입니다. 교만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겸손은 일치와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1912년, 거대한 빙하 하나가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하는 타 이타닉호를 침몰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빙하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뽕뽕 얼어있는 탓에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단단합니다. 인간의 이기심도 얼음처럼 차가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폐쇄되어 뽕뽕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따스한 햇볕에 녹듯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은 진리와 사랑으로 녹아내려야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더 넓고 깊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 모든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더 큰 진리의 바다에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 진리가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겸손의 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큰 나무로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덕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겸손의 덕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성모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세상에 혼란을 불러오는 죄의 창문을 열었지만,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겸손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와는 세상에 어두움을, 성모님은 빛을 가져왔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겸손함은 교만함을 치유합니다.

동정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58-463항 참조) 하느님의 겸손하심은 마리아의 겸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작고 보잘 것 없음을 고백하고, 하느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총과 권능의 위대함을 찬양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시고 그분의 겸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면 겸손은 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느님께서 나자렛 고을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루카 1,31-35)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피조물이 희망과 숨 막히는 긴장감을 지닌 채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리아의 대답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지극히 겸손함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으며, 그 한 마디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 갑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456-511항

☞ 구약에 묘사된 하느님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스라엘민족을 위협하는 다른 민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왜 구약에서의 하느님 모습은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 거실에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예수 성심상과 성모 성심상이 그려진 액자가 양쪽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늘 보던 표정과 눈빛이었지만, 늘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을 한 날에는 그림 속의 예수님과 성모님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듯 하였습니다. 반대로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거나,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마치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이 무서운 눈빛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마음을 바꾸곤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두 얼굴,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느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하느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얼굴은 하느님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유배로 끌려가고,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당했던 시절에는 구원의 하느님, 위로의 하느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의 안일함에 빠져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에는 심판의 하느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백성의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